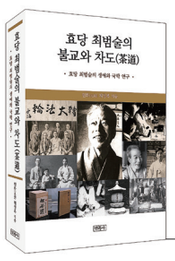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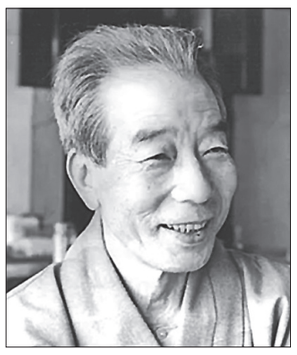
실천적 불교인 효당 최범술 조명하다



효당 최범술의 불교와 차도
채정복 지음/민족사/5만7000원



효당 생전 자료들 총망라
국학적 시각으로 규명해
불교인, 차인 면모들 살펴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효당 최범술(1904~1979) 스님은 다채로운 스펙트럼을 가진 인물이다. 불교인이며 원효학 연구자였고, 독립운동가였으며 제헌의원을 지낸 정치가다. 또한 현대 차문화의 중흥조이다.

효당은 우리가 영화로 잘 알고 있는 '박열'과 함께 흑우회(불령선인회)의 일원이 돼 일본 천황 암살을 위해 중국 상하이에서 폭탄을 가져오기도 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효당(曉堂)은 원효(元曉) 스님의 효(曉)자 호로 사용할 정도로 원효 교학 복원에 평생을 바치며, 국민대학, 해인중고등학교, 해인대학을 창설했다.

그는 전통적인 의미의 탈속적인 고승이 아닌 근대 불교계의 실천적인 지식인으로 다방면에 걸쳐 활동했다. 이 같은 효당의 생전 자료를 총망라해 국학적 시각으로 규명한 연구서 〈효당 최범술의 불교와 차도(茶道)-효당 최범술의 생애와 국학 연구〉가 발간됐다.

이 책은 효당의 일생을 통한 활동과 연구의 성격과 지향점이 '국학'으로 귀결하였음을 조명한다. 여기서 말하는 국학은 단순한 전통의 계승이 아닌, 근대적인 민족적 자아의 재발견을 말한다. 나아가 그 지향점이 '살아있는 사람'이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효당은 부처와 중생을 나누어 성불(成佛)을 어떻게 하는지 묻지 않았다. 다만, 직면한 일상사의 소중함과 자연스러운 순리와 부지런한 정진을 강조하며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였다. 효당은 이를 '대사회성(大社會性)'이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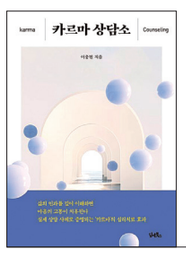
불교인으로서 효당은 일제강점기인 1937년 해인사 인경(印經, 목판을 인쇄해 책으로 만드는 작업) 도감을 맡아 〈고려대장경〉 인경을 불교계의 동지들과 함께 6개월간 작업해 11월에 완성했다. 이때 효당은 국간판(국가가 제작한 경판) 대장경 외에 그동안 해인사 장경판고의 동서재에 방치돼 오던 사간판(지방관청이나 사찰에서 제작한 목판)도 빠짐없이 인간(印刊)하여 1만1391판에 달하는 '해인사 사간 루판 목록(海印寺寺刊鏤板目錄)'을 완성했다.

이 사간판에서 국간판보다 훨씬 정교하고 우아한 요나라 대안본(大安本)과 수창본(壽昌本)이 발견됐고, 그때까지 발견되지 않았던 원효 대사의 〈십문화쟁론(十門和諍論)〉 상권판 4쪽, 고려 〈대각국사문집(大覺國師文集)〉 완질, 의상 대사의 〈백화도량발원문(白花道場發願文)〉 등이 발견돼 세상에 처음으로 알려졌다. 국간판 고려대장경이 한문으로 번역된 경전 중심으로 구성된 데 비해, 이들 사간판은 경전의 주석, 중국과 한국 승려들의 개인 찬술, 고승의 전기 어록, 불교 의례 등 다양한 전적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차인이라면 알고 있는 초의 선사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린 인물이 바로 효당이다. 그는 조선 시대를 거치면서 일반 대중에게는 거의 사장(死藏)된 차 문화를 중흥하였다. 경남 사천 다솔사에서 차나무를 심어 차를 직접 만들고 한국 최초의 상업판 단행본인 〈한국(韓國)의 차도(茶道)〉를 저술하여 한국 차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한국 차문화를 대중화시켰다.

책의 저자인 원화 채정복 박사는 효당본가 반야로차도 문화원 본원장이자 효당사상 연구회 회주다. 채정복 박사와 효당과의 인연은 고교 시절부터 시작되었는데 효당의 문하에 정식 입문한 것은 대학교 3학년 때였다. 효당의 맏제자로 원효(元曉)의 원(元)을 받아 원화(元和)라는 호를 받았다. 그녀는 효당을 이어 원효학 공부, 차도 수련 뿐만 아니라 특히 독자적인 '반야로선차도'를 개창해 국내외에 선차문화 열풍을 일으키기도 했다.

因果 이해하면 고통이 치유된다



카르마 상담소
이충현 지음/담앤북스/1만7000원

"이게 다 네 업(業)이야."

불교에서 '업'은 교리적으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다. 삶에 따른 인과를 비롯해 세상 모든 만물이 서로 작용을 주고받으며 생멸한다는 연기(緣起)를 설명하는 방편이 되기 때문이다. 산스크리트어로는 '카르마(karma)'라고 불리는 업. 다만 한국에서 업은 '업장' 또는 '업보'라는 말과 함께 부정적인 느낌을 갖게 한다. 잘 됐을 때보다는 좋지 않은 결과를 마주했을 때 주로 사용하면서 생겨난 현상이다.

과학이 발달하며 이제는 양자역학에서도 불교의 '연기'와 '공(空)' 사상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지금의 과학자보다도 앞선 진리를 설하신 것 자체가 경이로울 따름이다. 하지만 이 '업'이라는 개념을 상담심리학에서는 얼마나 쓸까? 아마도 조금은 생소한 개념일 것이다. 〈카르마 상담소〉의 저자 이충현 소장은 '업'을 삶의 인과를 설명하는 진리의 개념으로 규정한다. 치유의 관점에서 바라본 '카르마 인과 법칙'이다.

저자는 카르마 인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전생도 내생도 아닌 현생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번 생은 과거 생의 카르마에 의해 야기됐고, 이번 생의 카르마는 다음 생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삶에 고통을 주는 많은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삶을 돌아보며 인과를 잘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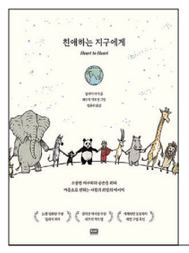
책은 이 시대에 왜 카르마를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지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결과중심적인 세상이 계속되면서 현대인은 삶을 인과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됐다는 게 저자의 설명이다. 그만큼 자기통제력은 빈약해지고 그 대가로 정신이 불안해져 고통스럽다는 말이다.

카르마의 본질 가운데 하나는 '의지'다. 의지에 따른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의 결과가 다르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도 의도적으로 지은 카르마는 반드시 그에 해당하는 결과를 받는다고 하면서도 의도적이지 않은 카르마에는 다른 입장을 취한다. 이를 통해 저자는 고의적 카르마가 언젠가 결과를 가져올 것임을 신뢰하면 내적으로 인과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된다고 조언한다. 결과를 걱정하는 데 쓰이는 심적 에너지를 비축하고, 이 여유분을 통제 가능한 영역에 돌려 사용할 수 있어서다.

이처럼 저자는 카르마의 인과 법칙에 따른 카르마 상담의 원리 7가지를 설명하고, 통찰과 치유로 이끈 카르마 상담 사례를 소개한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지구와 공존 위한 희망의 편지



친애하는 지구에게
달라이라마 글
패트릭 맥도넬 그림
정윤희 번역
알에이치코리아/1만8000원

노벨 평화상 수상자 달라이라마와 칼데콧 아너상 수상자이자 인기 만화 '머츠(MUTTS)'의 작가 패트릭 맥도넬이 지구의 희망적인 미래를 위해 인류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담은 책을 내놓았다.

이야기는 인도 다람살라에 있는 달라이라마의 거처에 특별한 방문객이 찾아오며 시작된다. 달라이라마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먼 길을 달려온 손님은 바로 보금자리를 잃은 대왕판다. 둘은 서로를 벗 삼아 함께 산책을 떠난다. 아름다운 자연에 둘러싸인 둘은 지구와 자연, 그리고 인간에 관한 크고 작은 이야기를 나눈다.

인류의 발전과 지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달라이라마가 제안하는 것은 '자비로운 혁명'이다. 모든 생명체가 '지구라는 하나의 작은 집을 공유하는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행동하는 것. 소소하고 하찮아 보일 수 있는 인간의 행동 하나하나가 지구상의 존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데서부터 자비로운 혁명은 시작된다.

달라이라마의 어린 시절을 가득 채우던 아름답고 고상한 야생 동물들의 풍요로운 모습은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다. 인간의 무지와 탐욕, 지구상의 생명체에 대한 존중심 부족으로 인한 자연 파괴로 그들의 서식지가 사라진 탓이다. 달라이 라마는 인간이 지구를 끝내 멸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지구를 보호할 힘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지금부터라도 이를 깨닫고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

환경과 기후 변화를 주제로 한 이 책이 전하는 메시지는 직접적이고 단순하다. 모든 이야기는 '우리는 지구라는 자그마한 집을 공유하는 가족'이라는 사실에서 시작된다. 이 책은 너무나 당연해서 단조롭게 느껴지는 그 말의 이면을 들여다보게 한다. 지구를 공유한다는 것은 곧 우리가 촘촘한 관계로 엮여 있다는 뜻이고,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지구상의 만물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이다. 달라이라마의 메시지처럼 '지구를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는 자신만의 특별한 방식으로 세상의 아름다움과 번영에 보탬이 되기 위해 태어난 것'임을 깨닫는다면 나에게 지워진 책임을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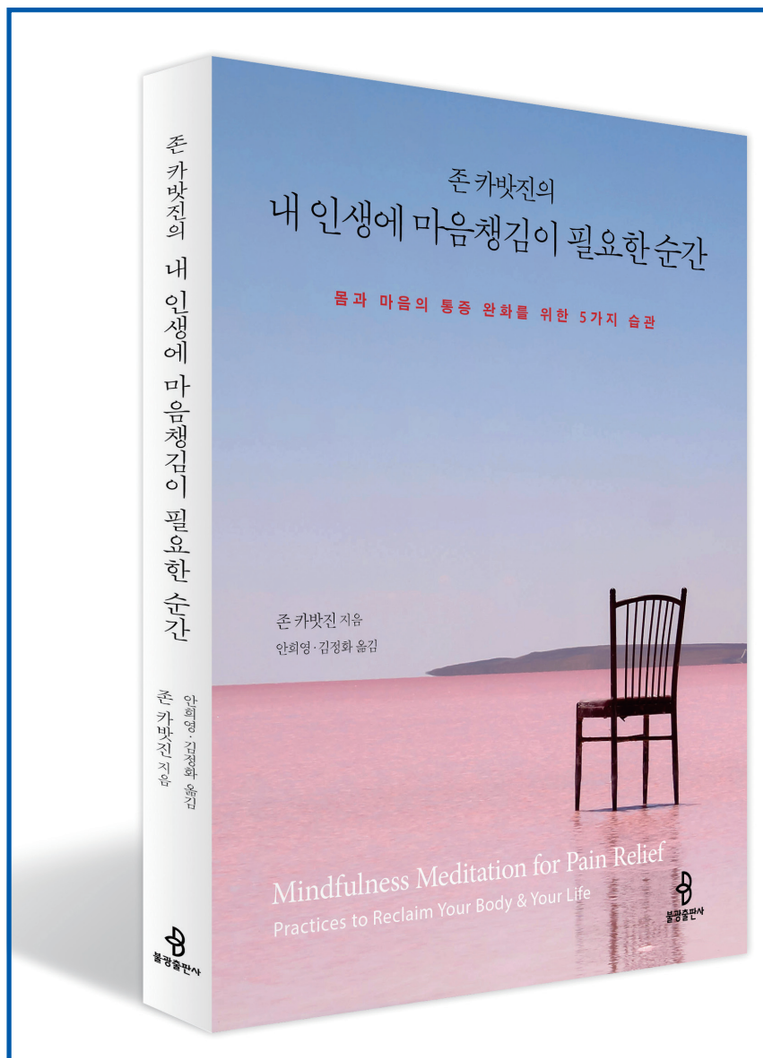
세상의 모든 생명체를 대변한다는 마음으로 행동하고, 이웃에게 친절하며, 자비심과 공감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이 책을 읽은 모두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비로운 혁명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책 속의 밑줄 긋기

우리는 모두 우주와 상호 밀접하게 연관돼 있으며 그 사실에서부터 보편적 책임을 나누어 지는 셈입니다. 결국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인간이든 동물이든 상관없이, 자신만의 특별한 방식을 통해 세상의 아름다움과 번영에 보탬이 되기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82~8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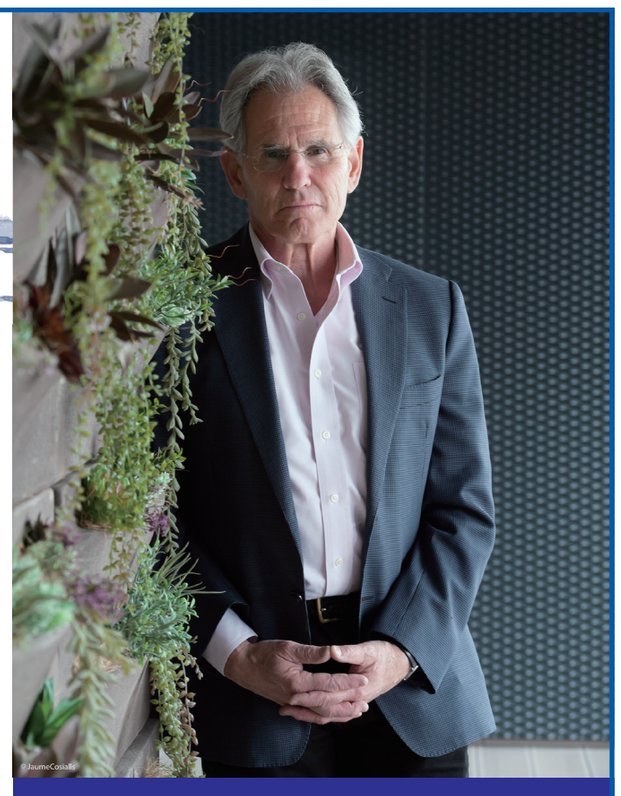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만성 통증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마음챙김 명상의
놀라운 기적!

MBSR 개발자
존 카밧진 박사
최신간!

통증 완화
안내 명상
오디오 수록!

존 카밧진의
내 인생에 마음챙김이 필요한 순간
몸과 마음의 통증 완화를 위한 5가지 습관
존 카밧진 지음 | 안희영·김정화 옮김 | 212쪽 | 18,000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이 책은 통증과 괴로움을 이해하며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 가능성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 줄 것이다."
- 존 카밧진